

미국내 한인청소년문제와 대책

— 캘리포니아지역을 중심으로 —

차 경 수*

- I. 서 론
- II. 청소년의 정체성과 미국사회의 소수민족 문화정책
- III. 몇개의 가설
- IV. 대 책
- V. 결 론

I. 서 론

청소년문제는 매우 넓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의미를 간단히 고찰하는 것이 좋겠다. 때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일정한 연령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이 어른이 하였을 때에 법률상 범죄가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와 음주, 흡연 등과 같이 범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요청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전자는 청소년 범죄이고, 후자는 청소년비행 또는 우범행위라고 말하는데, 학자들은 후자가 청소년의 특수한 신분에서 오는 것이므로, 이를 신분비행 *status offens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비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건전한 청소년들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의미에서 청소년들의 심한 가치갈등과 같은 것도 청소년문제에 포함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문제라고 할 때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문제를 이처럼 성인들의 문제와 별도로 생각하려는 것은 청소년들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차지하는 중요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경험의 부족이나 판단의 미숙으로 일시적인 과오에 빠져 잘못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에 이를 교육적으로 바로 잡아 다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뜻에서이다. 미국에 있는 한

*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인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청소년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그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들이 혈연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한국민족공동체의 일부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 이들 청소년들이 언어와 생활양식 등 문화가 한국과 다른 곳에서 사는, 말하자면 이중문화권에서 살고 있으므로 문화적 정체성에서 오는 문제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청소년들의 문제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 보려는 것이며, 둘째 그러한 문제의 개선책을 생각해 봄으로써 청소년과 그 부모들이 행복한 삶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개선책은 미국에서의 개선책과 한국의 지원책을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한다.

미국에서 미국청소년 일반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지만, 한국계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재미 한인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시간적인 제약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가능한 기존 자료의 분석,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의 1년간의 필자의 직접적인 관찰, 한국교포 및 청소년과의 광범위한 면접, 버클리대학 한국학연구소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한국관계 세미나, 미주판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 보도된 자료 등을 참고로 하여 연구되었다. 이 연구가 청소년문제의 형태나 원인 등을 가설형식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제한때문인 것이다.

II. 청소년의 정체성과 미국사회의 소수민족 문화정책

1. 청소년기의 정체성

청소년문제는 생물학적 연구, 심리학적 연구, 사회문화적 연구 등 여러가지로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어느 하나로 설명하기보다는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재미 한인 청소년들이 미국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성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발달과정과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이질적인 문화의 학습에 중점을 두어 청소년문제를 서술하고자 한다.

발달단계론자 중에는 피아제, 브르너, 콜버그 등 여러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에릭슨의 발달단계론이다.

에릭슨(Erik Erikson)은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프로이트보다 더 많은 공헌을 하였다. 에릭슨은 주로 인지적인 발달단계를 가지고 성장과정을 설명하는 다른 발달단계론자들과는 달리 인간의 성장과정에서 사회는 매우 심각한 정서적 위기를 개인에게 주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경우는 개인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라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가 제시한 발달단계의 8가지 위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유아기와 취학 이전의 (1) 신뢰와 불신, (2) 자율성과 수치 및 의심(그는 이미 유아기에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했다), (3) 숭선수범과 죄의식,

(4) 성취와 열등감, 청소년기의 (5) 정체성 확립과 정체성 혼돈, (6) 친밀한 관계 정립과 고립,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기의 (7) 후세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 (8) 인격의 성숙과 절망감 등이다(Erikson, 1968 : 110-140)

유아기의 위기는 주로 인생의 바탕에 대한 것이지만, 청소년기의 위기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이나 역할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부모의 보호하에 있던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면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해지면서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요구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에는 동시에 자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의심, 우리 집과 내가 속한 사회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주변집단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장래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직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걱정과 희망 등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사람과 비슷한 점이 있으면서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것은 자기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말하자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의 독특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에릭슨은 정체성을 “‘그것이 바로 참된 나 자신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자기 자신 속에 깊숙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동일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과정은 이처럼 개인적이면서도 또한 사회적으로 행동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이라고 했다(Erickson, 1968 : 19-23).

정체성 확립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이성과의 성적 관계와 함께 인생과 사회를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평생의 참된 친구관계의 정립을 주로 의미하는데, 모두 중요한 것들이다. 특히 이성과 성에 대한 관심은 청소년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이다.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성애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신뢰를 발달시킬 수 있다면, 그는 앞으로 계속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거나 자기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잘 수행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자아에 대한 분열과 가치관의 갈등 등을 경험하면서 부적응을 면할 수 없을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에릭슨은 이 위기를 잘 넘기면 “주위의 환경을 능동적으로 극복하면서 인격의 성숙과 함께 자기 자신과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Erikson, 1968 : 92).

2. 미국 사회의 소수민족과 하위문화의 현황

1905년에서 1910년까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가장 많았던 때이다.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이민이 왔다. 미국의 서부에서 철도를 건설하던 1880년대는 중국인 이민이 노동자로 대량 사용되었다. 지금도 캘리포니아의 곳곳에서 중국인들이 사용했던 집단적인 숙소가 보존되어 있다. 그 후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이 이민으로 왔다. 다시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아시아에서 필리핀인, 한국인, 중국인들이 많이 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인과 중국인들이 몰려 오고 있다.

1980년의 미국 총인구조사 자료를 보면 <표 1>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백인 83.61%, 흑인

〈표 1〉 미국의 인종 구성, 1980년 총인구조사

인 종 집 단	인 구 수	비 율
백인	188,340,790	83.61
흑인	26,488,218	11.76
미국 인디언	6,756,986	3.00
중국인	806,027	0.36
필리핀인	774,640	0.34
일본인	700,747	0.31
인도인	361,544	0.16
한국인	354,529	0.16
월남인	261,714	0.12
하와이인	167,253	0.07
라오스인	47,683	0.02
타일랜드인	45,27	0.02
에스키모인	42,149	0.02
사모아인	42,050	0.02
팜인	32,132	0.01
캄보디아인	16,044	0.01
파키스탄인	15,792	0.01
알류시언인	14,177	0.01
합 계	225,267,754	

자료: U.S. Bureau of the Census 1980, cited in Deniel U. Levine and Robert J. Havighurst, *Society and Education*, 7th ed., Boston: Allyn and Bacon, 1989, p. 361.

11.76%, 미국 인디언 3%, 중국인 0.36%, 일본인 0.31%, 인도인 0.16%, 한국인 0.16% 등이고, 월남, 라오스, 타일랜드, 캄보디아 등 여러 나라에서 다양하게 이민이 오고 있다. 한국인은 35만여명으로 인도인 다음으로 8번째로 되어 있다. 이것은 1980년 자료인데, 80년대에 이르러 매년 3만명 정도가 이민으로 12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이들이 상당히 증가했을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에만 교포가 50만이 있고, 미국 전체에는 100만 내외로 추산되고 있다(Pogrebin and Poole, 1989: 47). 미국 내의 이들 소수민

족들은 제각기 자기의 언어와 음식, 의복, 생활습관 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하위문화가 각각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표 2〉는 미국 공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과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인종적으로 비교해 본 것이다. 예컨대, 미국 전체 평균으로 보아 공립학교에 영국계는 71.2%를 차지하고있으나, 대학에서는 81.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히스패닉계는 공립학교에서 9.1%를, 대학에서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공립학교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학에서는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인종에 비하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아시아인들의 높은 교육열 때문일 것이다. 한국인들만을 독립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지만, 대개 아시아계의 특성과 같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기관에의 비율이 가장 적은 것은 미국 인디언으로서 공립학교에서 1.1%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학에서는 0.7%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자료는 미국의 평균 뿐만 아니라 8개주를 선택하여 주별로 비교하기도 했는데, 주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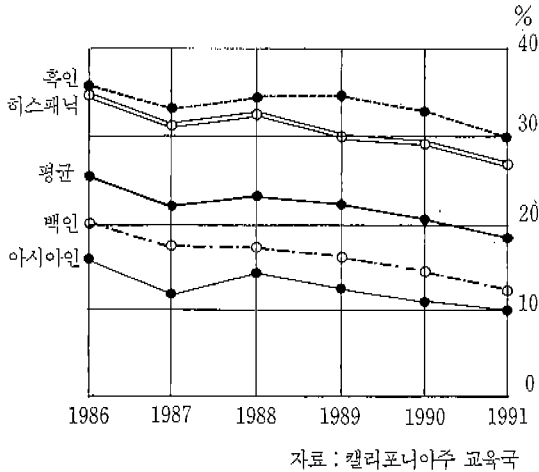
그리고 〈표 3〉은 캘리포니아지역의 공립학교 학생들의 중도퇴학률을 표시한 것이다. 1986년에서 91년에 이르는 동안 퇴학률은 상당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매우 특이한 것은 인종별로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30% 내외로 매우 높고, 아시아계 학생들의 탈락률은 약 10% 내외로 백인들보다도 오히려 더 낮은 것이다. 한국계 학생들의 탈락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표 2〉 미국의 공립학교(1984)와 고등교육기관(1986)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종별 비교(%)

지 역	영 국 계		흑 인 계		히스패닉계		아 시 아 계		미국인디언	
	공립	대학	공립	대학	공립	대학	공립	대학	공립	대학
미국 전체 평균	71.2	81.6	6.2	8.9	9.1	5.1	2.5	3.7	1.1	0.7
캘리포니아	52.0	68.6	10.1	7.0	29.2	11.6	8.1	11.5	0.6	1.2
플로리다	67.7	78.3	23.1	9.6	8.1	10.3	1.0	1.6	0.1	0.3
미시간	79.5	87.0	16.7	9.2	1.9	1.3	0.8	1.4	1.0	1.6
뉴 멕시코	44.9	63.9	2.2	2.4	43.4	26.2	0.7	1.2	8.7	6.3
뉴욕	64.4	77.5	18.7	11.3	13.6	6.9	3.2	3.7	0.1	0.5
펜실베이니아	84.6	90.6	12.6	6.6	1.6	1.0	1.1	1.6	0.1	0.2
테네시	78.5	84.0	20.9	14.3	0.1	0.8	0.5	0.7	—	0.2
텍사스	56.6	72.3	3.9	8.9	27.9	15.7	1.4	2.8	0.1	0.3

자료 :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Civil Rights, cited in Richard C. Richardson, Jr., and Elizabeth F. Skinner, *Achieving Quality and Diversity: Universit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NY: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Macmillan, 1991, pp. 21-22.

〈표 3〉 캘리포니아의 공립학교 중도탈락률



알려지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세가지의 자료는 인종에 따른 하위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로 교육과 관련된 인종간의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여러 인종들간에 교육의 기회와 관련하여 커다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교육의 중요성 인식에 대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민 온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교육의 기회가 상승적인 사회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주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의 자아형성이나 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일이다. 실제로 미국의 학교가 소수민족의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불평등, 좌절,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승이동보다는 오히려 사회이동을 저해하여 현상유지의 수단으로 학교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Estrada and Vasquez, 1991: 53-54).

3. 옹광로정책과 문화적 다원주의정책

재미 한인청소년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미국정부가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서 실시해 온 용광로 정책과 문화적 다원주의 정책에 대해서 먼저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1776년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래 미국은 세계의 각국에서 온 이민에 의하여 이루어진 나라이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20세기 초에는 유럽에서 매년 100만명 이상의 이민이 미국으로 몰려 왔다. 언어와 생활습관이 서로 다른 이러한 이주민들을 미국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미국 정책수립자들의 가장 큰 문제이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건국초기부터 오랫동안 이른바 용광로정책 *Melting Pot policy*을 써왔다. 용광로정책은 제각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공통적인 미국의 이념과 가치관을 교육시켜 동일한 미국인을 만들려고 한 정책이다. 이것을 위하여 미국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전개한 사업이 미국의 공립학교 확장사업이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공통어로서의 영어와 미국의 이념과 가치로서 자유, 평등, 정의, 국민의 정치참여와 같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교육하여 미국 국민들을 미국화하는데 전력을 다했고,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에 오면서 이러한 용광로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게 되었다. 인디언을 백인과 같이 동화시킨다는 정책아래 1878년에는 펜실베이니아에 처음으로 인디언학교가 세워지고,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있게 하면서 백인문화를 가르쳤다. 백인 가정에 유숙하는 경우에는 1년에 \$50의 연방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인디언을 백인화하려 했다. 이 이외에도 수많은

기숙사형 인디언 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인디언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들 가정으로부터 멀리 데려가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사회적 비판도 나오게 되었다.

1924년에 칼렌(Horace M. Kallen)은 『미국의 문화와 민주주의』(*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라는 책에서 미국의 용광로정책을 비판하고, 문화적 다원주의 *cultural pluralism*를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제1차세계대전 후에는 남미에서 히스패닉계와 푸에르토계의 이주민이 대대적으로 몰려 와 영어를 모르는 채 생활하게 되었고, 폴란드에서 온 이주민과 같이 유럽이주민들도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는 등 용광로정책으로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게 되었다. 다시 제2차세계대전 후에는 평등적인 민주주의 사상의 보급으로 흑인들의 민권운동이 활발하게 되었고, 중국, 일본, 한국 등에서 많은 이주민이 오면서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보존 문제가 문화적 다원주의의 입장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오늘날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는 대략 (1)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고, (2) 하위문화의 구성원들이 취업하여 빈곤을 피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게 하고, (3) 누구에게나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4) 하위문화의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5) 분리주의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6) 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한 하위집단들이 독립된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7) 하위집단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별도의 교육체제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며, (8) 모든 하위집단들이 사회 전체의 복지에 공헌하

는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Levine and Havighurst, 1989 : 363-367).

4. 이중언어, 이중문화, 이중인지발달을 위한 교육

문화적 다원주의에 따라서 이중언어, 이중문화, 이중인지발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1968년의 이중언어교육법 *Bilingual Education Act*, 1974년의 이중언어교육법의 개정은 이러한 교육을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그 프로그램에는 크게 보아 5가지 유형이 있었다. 이들은 (1) 영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NEP : *Non-English-proficient students*)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기 이중언어교육 프로그램 *Transitional Bilingual Education*, (2) NEP와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 LEP : *Limited-English-proficient students*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유지 프로그램 *Bilingual Maintenance Program*, (3) 언어, 문화, 역사 등의 교육에 역점을 두는 이중언어, 이중문화 유지 프로그램(*Bilingual/Bicultural Maintenance Program*), (4) 동화로 인해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완전히 상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언어, 이중문화 회복 프로그램 *Bilingual/Bicultural Restorationist Programs*, (5) 누구에게나 개방된 이중언어, 이중문화의 문화적 다원주의 프로그램 *Bilingual/Bicultural Culturally Pluralistic Programs* 등이다. 이중인지교육 *bicultural cognitive education*은 집단을 중요시하거나 교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동양인이나 미국 인디언과 같은 소수민족의

문화를 존중해서 거기에 맞추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교육에 효과에 대해서 그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영어 학습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와 학생들의 적응을 도와주고 학업성적이 향상된다는 엇갈린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1) 중류계층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었고, (2) 영어학습 의욕을 매우 높였으며, (3) 영어학습에는 5년~7년이 필요하고, (4) 프로그램과 그 효과가 학교마다 다르며, (5)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어린이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5~7년이 더 소요되고, (6) 학부모들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들의 참여가 요청되고, (7) 영어는 모국어에 대한 보조언어로 교육해야지 그것을 모국어에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교육에 대해서 미국시민의 단결을 오히려 저해하고 소수민족의 적응을 더 어렵게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소수민족의 금지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려서 각 민족이 평등하게 미국의 발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을 건설적인 문화적 다원주의 *constructive cultural pluralism*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를 위한 교육의 방향은 (1) 민족간 적대감을 없애고, (2) 장기적인 계획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3) 다문화적 개념은 전 교육과정에 침투되어야 하며, (4) 교육방법과 학습의 분위기에도 반영되어야 하고, (5) 인지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도 강조되어야 하며, (6) 학생들의 배경과 경험을 존중해야 하고, (7) 학부모의 참여가 있어야 하고, (8) 인종주의, 성차별, 사회계층의 불평등에 대한 학생들

의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Levine and Havighurst, 1989 : 400-431)

III. 몇 개의 가설

지금까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하다는 것과 미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정책의 발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여 여기에서는 문제의 형태와 그 원인에 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

1. 문제의 형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한인청소년들의 문제에 관한 통계적인 자료의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자료와 면담 등을 통하여 주로 로스앤젤스와 샌프란시스코지역의 문제의 형태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그 이외 지역의 문제도 자료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언급하고자 한다. 청소년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갱단의 일행으로서의 강도, 약물남용, 폭행 등의 범죄와 비행이 가끔 보도되고 있다. 1990년 1월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히스패닉계 청소년 2명을 총으로 쏘아 사망케 한 10대 한인갱 6명이 2년 후인 1992년 3월에 체포되었다(미주판 중앙일보, 1992. 3. 3. p.6A). 또, 1992년 1월경 로스앤젤스에서는 한인 청소년들이 월남 청소년들과 어울려 한인 가정에서 강도를 한 사건이 있어 교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즉 한인 청소년들이 앞잡이가 되어 한인 집에서 가서 문을 열게 한 후 달아나고, 월남 청소년들이 침입하여 강도를 한 것이었다.

또 같은 해 9월경 뉴욕에서 한인 청소년들의 집단이 한인 가게에서 총으로 위협하여 금품을

털어 간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미국사회에서 흔히 있는 청소년들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인 갱 청소년들이 주로 한인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죄에는 약물남용이나 여자관계의 비행이 따르는 것 또한 흔히 볼 수 있다. 10년 전에 오크랜드로 이민 온 C군은 올해 29세인데, 온 후 얼마 안되어 친구들과 마약을 하기 시작하여 며칠 전에는 2층에서 뛰어내려 경찰에 연행되어 갔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러한 친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인 청소년범죄에 대한 별도의 통계치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심각한 범죄 이외에도 정체성의 혼란,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갈등, 정신질환, 학교에서의 무단결석과 중도탈락 등이 가끔 이곳 교포신문에 보도되고 있다(미주판 한국일보, 1992. 11. 16).

2. 원인에 대한 가설

경험적인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서 서술한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그 원인을 몇가지 가설형식으로 서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때 매우 흥미있는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가설은 대략 정체성의 위기, 부모와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갈등, 패락추구적인 환경에서 오는 유혹, 청소년시설이나 단체 등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기회의 부족 등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들은 비행이나 탈선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중요한 청소년문제의 형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즉 정체성의 위기나 부모

와의 가치관의 갈등은 비행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들 자체가 문제이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정체성의 위기

청소년기에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다. 청소년이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행동의 방향 감각이 뚜렷하지 않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이것을 해야 좋을지 저것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유혹에 빠져 비행을 저지르기가 쉬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규범의 약화 상태”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심리적인 갈등과 함께 탈선하기가 쉽다. 반드시 탈선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해도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에서 오는 정신적 혼란과 공허감, 무력감과 고독감, 긴장의 연속과 소외감 등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재미 한인청소년들이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나 분열을 경험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언어와 생활방식의 차이를 이중, 삼중으로 겪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들은 미국의 주류문화도 철저히 학습하지 못하고, 또 한국어나 한국문화도 충분히 익힐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 미국문화라는 주류문화와 한국문화 및 청소년문화라는 여러 개의 하위문화 가운데서 생활하는 이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것이다. 또 취업을 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또래집단의 구성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갈등은 작용하게 된다.

이들 한인청소년들은 미국 사회 속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의 사이에 심각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영어를 비교적 쉽게 습득하는 반면 부모들은 거의 한평생 영어에 숙달하지 못한채 외국어를 사용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성장한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안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들을 멀리하는 경우까지 있어 문제는 의외로 심각하다고 재미한인들을 말하고 있다. 1992년 11월 18일 필자가 방문했던 샌프란시스코 교외 엘세리토에 있는 한 한국인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시간에 담임목사가 설교에서 몇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었다.

올해에 버클리대학의 경영학과 3학년생인 S군은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열에 대해서 필자에게 1992년 2월 15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국민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온 1.5세대인데, 다행히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한국어를 쓰셔서 한국말을 좀 합니다. 지금 교포 청소년들 사이에는 한국어를 배우려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교포 청소년이 한국말을 모르면 우리는 그를 ‘쌍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어와 한국문화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최근에 있습니다.”

또 버클리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스탠포드대학 대학원 교육학과에 입학한 K양은 1992년 1월 27일 필자를 버클리대학으로 찾아와 한국문화와 한국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논문도 쓰고 싶다고 하면서 정체성의 갈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민 2세대

이고 여기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자랄수록 한국인이라고 생각될 때가 많아서 갈등이 있어요. 어쩐지 백인 미국인들과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 여자친구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한국인이나 동양인이 대부분이에요.” 그는 한글은 전혀 알지 못하고, 한국말은 더듬 더듬 할 수 있어서 필자와 한국말과 영어를 섞어 가면서 대화를 했다. 이 이외에도 필자를 찾아 와서 상담을 한 많은 교포 청소년들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1950년대에 유학와서 버클리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강의와 문화사업 등으로 미국에서 정착한 S씨가 1992년 10월 16일 버클리대학에서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행한 한 강연에서 “I feel very much Korean”이라고 하면서 문화적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고 필자는 정체성의 문제가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착한 지식인의 경우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언어와 생활습관이 서로 달라서 오는 정체성의 갈등에 대해서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학업성적을 둘러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윤리를 둘러싼 갈등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에 높은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일본 정부에서 실시한 11개 국가의 비교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한국의 부모들은 11개 국가 중 자녀의 학업성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Youth Affairs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gency, Prime Minister's Office, Japan, 1989).

이러한 경향은 미국에 이민 온 한국 교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교육열은 한인 청소년들이 미국의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을 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지역의 공립학교 탈락률을 인종적으로 볼 때 아시아계 학생들의 탈락률이 가장 낮은 데에도 높은 교육열은 잘 나타나 있다. 또 학업에 열중하는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바빠서 비행으로 빠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교육열과 학업성적에 대한 관심은 성적이 우수한 상위권 학생은 물론 학교공부에 따라가기가 어려운 하위권 학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긴장을 주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위권 학생은 그들대로 부모의 높은 기대와 자신의 성적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고, 하위권 학생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게 되기 쉽다.

1992년 6월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고등학교 졸업반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한인 학생과 월남 학생 6~7명이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담임교사가 가지고 있는 성적대장을 변조하였다가 발견되어 학교로부터 퇴학당한 것이 교포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들 대부분이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버드, 예일 등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떤 학생은 변조 전의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입학하였다가 학교측에서 변조사실을 대학에 통보하여 입학이 취소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높은 교육열, 특히 높은 성적에 대한 과열 관심이 낳은 역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성적이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약물남용, 갱단과의 접촉, 폭력행사 등 탈선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로스앤젤스와 샌프란시스코 등 교포들이 많이 있는 캘리포니아지역에서 개최되는 부모 대상의 강연회나 상담에서는 자녀들에게 높은 성적만을 무조건 요구하지 말고, 폭넓은 인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미주판 중앙일보, 19192.10.22, p.2C).

학교의 성적문제 이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흔히 있는 갈등은 부모들이 대개 한국에서와 같이 자녀들이 복종하기를 원하고, 부모들의 권위를 존중하기를 원하는데 비하여 자녀들은 미국식대로 독립을 원하고, 부모들의 간섭을 매우 싫어하는 데서 오게 된다. 대부분의 미국 청소년들은 고교 졸업과 함께 가정을 떠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와 함께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는 다른 집에 세들어 사는 것처럼 한달에 6백달러 내지 8백달러의 집세를 자녀가 부모에게 내는 집이 흔히 있을 정도로 부모와 자녀의 독립은 엄격하다.

미국의 ABC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Sally”라고 하는 인기 토크쇼가 있다. 1992년 10월 중순에는 며칠간 갈등관계에 있는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딸 들을 함께 출연시켜 누가 잘못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게 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모두가 서로 잘못했다고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한국 같으면 설사 부모나 시어머니, 장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더라도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녀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났다. 그것이 사회의 규범일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문화는 역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옳다고 생각되는 것

을 거침없이 말할만큼 개인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교포 청소년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자기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고, 또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모의 세대들은 부모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민 1세대들이 주로 한국인들끼리 많이 지내기 때문에 한국적인 가치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Pogrebin and Poole, 1989: 47-80). 여기에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이 나타나고, 청소년들의 가정에서의 부적응은 심각해진다. 또 부모들이 직장에 바빠거나 생활에 고달픈 나머지 자녀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비행의 유혹에 빠져들기 쉬운 것이다.

이민 온 1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인 1.5세대 또는 이민 온 후 출생한 2세대들 사이에 있는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연구는 한국 유학생들의 박사학위논문에서도 가끔 연구되고 있다. 재미 한인 가정의 자녀교육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인 이민가정의 부모들은 이민 온 후에도 여전히 한국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며(Lee, 1989), 1990년 시카고 지역의 한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가치관의 갈등이 크면 클수록 자녀들의 비행이 많았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ae, 1990). 또 한국계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미국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할 때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갈등과 좌절감, 주변성 등을 많이 느낀다는 연구도 있다(Golden, 1987).

3. 폭력과 섹스, 약물남용의 사회환경

폭력과 섹스, 그리고 약물남용은 오늘날 미국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1960년대에 미국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한 후 90년대에 다시 교환교수로 미국에 온 한국인 교수들은 이러한 문제가 지난날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악화된 것을 발견하고, “이런줄 알았더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다. 물론 60년대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러한 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지금은 대도시의 도심지는 말할 것도 없고, 교외와 중소도시 역시 밤에는 물론 낮에도 안전하지 못한 실정이다. 1960년대에 안전한 교외도시를 찾아 이동했던 미국인들은 최근에는 다시 범죄가 없는 조그마한 시골도시를 찾아서 대이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1992년의 4.29 로스앤젤레스 폭동에 의한 한인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이곳 교포신문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난 몇년간 40여명의 캘리포니아지역 한인들이 가게에서 피살되었다고 하며, 1992년 11월을 전후한 한달동안만 해도 3명의 한인들이 로스앤젤레스와 오크랜드 등 이 근처에 있는 자신의 리커스토어나 수퍼마켓에서 피살되었다. 필자와 잘 아는 한 사람은 2년 전 은행에서 나오다 총에 맞아 사망했고, 대학 동기생 한 사람은 가게 안에서 권총강도에서 탈렸지만, 다행히 죽지는 아니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필자에게 들려 주었다.

대부분의 한국 이민자들이 가족단위의 “스몰비즈니스”라고 불리우는 가게운영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생활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는 물론 오크랜드, 버클리, 리치몬드 등 한때 아름다웠던 이 근처의 교외도시들이 이제

는 낮에도 위험하여 다니기 어려운 곳이 되었고, 모든 시내 버스에는 승객을 녹화하는 촬영기가 달려 가동되고 있다. 인구 32만의 오크랜드에서는 지난 6월 7명이 하루 저녁에 총격전에서 사망하여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미국의 섹스문화 역시 청소년비행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문제이다. 1992년 10월의 어느날 오후 버클리대학의 학생회관 앞에서는 약 20여명의 젊은 남녀 나체주의자들이 완전 나체로 몇시간동안 들어 누워 있었다. 학교측에서는 경고를 주었고, 이를 무시하고 11월에 다시 나체운동을 벌린 한 학생이 무기징역을 당했다. 미국 청소년들이 17세가 되면 여자의 반과 남자의 3분의 2가 성관계를 가지며, 매년 250만명의 청소년들이 성적 접촉에서 오는 질병에 감염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100만명의 여성이 불임이 되고 있다고 한다. 50만명의 10대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있으며, 이 중 60%는 미혼모이다(Lickona, 1991: 324-350). 이들은 이른바 편모가정 *single mother home*으로 대부분 사회복지의 대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콘돔을 배부하기 시작했다. 뉴욕시에서는 벌써 몇년 전부터 배부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는 1992년 5월에 발보아(Balboa)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배부했다. 콘돔지급을 앞두고 부모의 동의를 구했는데, 학부모들이 5명만 반대했을 뿐, 모두가 찬성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성경험자들은 713명 중 81%가 찬성했고, 무경험자들은 115명 중 58%가 찬성했다. 평균 62%의 찬성, 18%의 반대, 20%의 무응답이었다(San Francisco Chronicle, a daily newspaper, 1992.5.3. P.3B). 카톨릭교

단체 등 종교단체에서는 콘돔지급에 반대했지만, 교육감은 이것이 물론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과반수의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는 상황에서 학생들을 성관계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미혼모 문제등 어려운 사회문제의 예방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여기에 찬성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있는 후 학교 근처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콘돔을 사용하는 학생이건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건 남학생은 콘돔이 들어 있는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다니고, 여학생은 열쇠고리에 콘돔을 달고 다니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가끔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STD(성병)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물으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콘돔을 사용해요”라고 대답하고, 다시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이도록 요청하니 어떤 여학생이 나와서 실물 크기의 남성의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들어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의 뉴스 시간에 방영되는 것이다. 만약 보수적인 한국인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이 이런 모습을 학교에서 본다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60%는 마약을 경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민학교 4학년 학생의 25%가 마약을 해보라는 친구들의 권유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다. 1989년 베닝턴(Bennington) 고등학교에서는 약물검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을 주고, 이들에게는 식당, 불링장 등에서 할인혜 주는 특전을 주면서 약물교육을 실시했다고 한다(Lickona, 1991: 376-385). 이것은 고등학교에서의 약물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가를 반영해 주는 것이다.

4. 건전한 여가이용시간과 시설의 부족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한다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체를 단련하고 음악이나 미술 등의 고급문화에 접촉하면서 정신적 수양을 하며, 자연 속에서 호연의 기를 기르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는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을 하려면, 첫째 마음에 맞는 좋은 친구와 또래집단 *peer group*이 있어야 하고, 둘째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가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의 여유가 있어야 하고, 셋째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재미 한인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한인 청소년들이 정체성의 갈등에 대한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인 청소년들은 언어와 생활 습관이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미국 주류문화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흥미를 털어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래집단을 형성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재미가 없어서 가기 싫어 한다는 것을 여러 학부모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다. 한국인들끼리 몰리거나 아니면 월남인이나 중국인 등 동양계의 소수민족 청소년들끼리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도 한인 청소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들과 또래집단을 형성할 때 건전한 여가의 이용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이다.

돈의 여유나 시설의 문제도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80년대에 들어와 미국의 경기가 후퇴하면서 전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특히 가계운영에 매달리고 있는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민자의 생활이 안정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자녀들이 여가이용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주고, 여가 이용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용돈을 주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뉴욕시의 한인 청소년들의 여가이용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들의 여가이용 형태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an, 1990). 물론 저렴하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언어와 문화의 차이, 주류문화 청소년들과의 또래집단 형성 미흡 등의 이유로 교포 청소년들의 여가시설 이용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부모들이 공부하는 것만을 강요하기 때문에 학업공부에 바쁜 나머지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반드시 부모들의 강요만은 아닐 것이다. 별달리 할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인 청소년들이 자연히 공부하는 데에 열중하기도 하고, 또 사회봉사 활동보다도 공부에 열중하는 것이 한인 청소년들의 문화적 전통의 한 부분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재미 한인 학생들이 학업성적은 우수하지만, 사회봉사활동 등 과외활동이 부족하여 일류대학에서 입학할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건전한 여가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인 청소년들의 문제인 동시에 또한 더 심각한 비행이나 탈선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IV. 대 책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 속에서 정체성의 위

기를 맞이하고 폭력과 쾌락추구적인 사회환경에서 비행과 일탈로 빠지기 쉬운 것이 미국내 한국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들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 청소년 활동의 촉진, 상담활동의 강화 등으로 시사될 수 있다.

1.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

우리는 앞에서 청소년 시기에 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만약 정체성이 분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삶의 방향 감각이 흐려지고 심리적인 갈등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청소년들은 두가지 방향에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한국적인 언어나 문화를 모두 버리고 재빨리 미국의 주류문화에 동화되어 사는 방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경우이다. 뉴욕시에 있는 중국계 청소년들의 비행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의 주류문화를 재빨리 학습하여 영어도 잘하고 좋은 직업을 가진 성공한 청소년과 아직 동화가 안되어 중국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사는 청소년은 비행이 적었고, 미국문화와 중국문화의 사이에서 갈등에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이 가장 많았다(Sheu, 1986).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계 청소년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인이자 한국인이 아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들이 미국의 주류문화를 충분히 학습하여 미국사회에 적응하고, 그곳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보다는 영어와 미국의 생활습관에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차례 고찰한 바와 같이 이중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계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차라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적응을 쉽게 하고, 또 비행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학자들의 연구 결과이다.

미국의 소수민족 언어나 문화에 대한 정책이 용광로정책으로부터 문화적 다원주의로 바뀐 것은 이러한 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 미국 인디언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인디언 청소년들이 앵글로색슨 청소년들처럼 수업 중에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별로 말이 없는 것은 문화적으로 인디언들은 여러 사람 앞에서 개인이 나와서 잘난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인디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 앞에서 혼자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계의 학생들도 수업중에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고 알려지고 있다(Levine and Havighurst, 1989 : 428).

또 앵글로색슨계의 학생들이 “현장 독립적” *field independent*인데 비하여 히스패닉계의 학생들은 “현장 의존적” *field dependent* 또는 “현장에 민감한” *field sensitive*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은 칭찬, 꾸중, 수치심 등이 관련되는 학습장의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영향

을 많이 받으며, 따라서 대화, 유머, 드라마 등이 효과적이고, 수업에서는 전체적인 제목을 먼저 학생들에게 주고 수업을 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더 날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Levine and Havighurst, 1989, 413). 이것은 모두 소수민족의 언어나 문화를 존중하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문화적 다원주의에 의하여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고 이중언어로 교육을 하고 있는 최근의 실정에서 한국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여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 시설 확장과 활동의 촉진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교육을 위한 청소년 시설을 확장하고,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미국에서 매우 취약하다. Korean Center 또는 Korean Youth Center 등을 다수 설치하여 한국계 청소년들이 한국어와 한국의 역사, 사상 등을 학습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비단 한국어나 한국문화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적응을 도와 주는 뜻에서 영어와 컴퓨터, 직업기술 등도 교육하며, 캠핑, 여행, 사회봉사활동, 자연탐구 등 여러가지 청소년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시설을 만들고 활동을 하기 위한 재정적인 문제이다. 일부는 수익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겠지만, 청소년활동은 수업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확장이나 활동의 기

금을 위해서는 한국정부나 문화재단의 지원, 독지가들의 기부금에 의한 후원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미국내에 있어서도 한국인 교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문화재단들의 후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는 한인 1.5세대와 2세대 청소년들에게 희망찬 이상이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지만, 그런 공간이 한인 사회에는 아직 없고 누구도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조차 안하는게”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미주관 중앙일보, 1992. 10. 22. p.3C).

3. 상담활동의 강화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상담의 중요성은 여기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지만, 이중문화속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위가 낯설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텐데, 이러한 때에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대개 부모, 형제, 친구, 교사, 성직자, 상담원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언자 중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이 별로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민사회의 현실이다. 다만 미국에 있는 한국인 교회는 신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이러한 역할을 청소년 뿐만아니라 교포 성인들에게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과 전문적인 상담능력의 부족 등으로 상담에는 한계가 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비교적 밀집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위로 상담센터를 두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상담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인 부모들이 우수학교 선정, 대학진학지도, 실력향상 등에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 이해, 미국문화 적응, 대화 등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 이곳 상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주관 중앙일보는 자녀 교육을 위한 특집에서 부모들은 (1) 미국 교육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자녀와의 대화, 훈육에 대한 연구, (3) 미국 역사와 교육 용어에 대한 이해, (4) 과학적인 정보 수집 및 활용, (5) 학교 및 교육구 회의에서 적극적인 참석, (6) 자녀가 18세가 되면 부모 절을 떠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등을 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1992.10.22. p.2C). 우리는 이러한 논의에서 올바른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엿볼 수 있으며,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등에서 일류대학이나 학업성적향상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자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이 연구는 미국내에 있는 한인 청소년 1.5세대와 2세대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택을 시사해 보고자 한 데서 시작된 것이다. 경험적인 자료를 분석, 연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이 연구에서는 주로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한인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들 및 대학과 연구소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면접, 그리고 필자의 버클

리대학에서의 1년간의 연구기간 중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직접적인 관찰 등을 자료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내 한인 청소년의 문제와 그 원인을 몇개의 가설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때 흥미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정신분석학자 에릭슨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기의 가장 큰 발달과업은 정체성의 확립이다. 청소년기에 정체성이 모호해지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심한 가치갈등을 경험할 것이며, 어른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감각이 흐려질 것이다. 정체성의 분열이나 가치관의 갈등 그 자체도 중요한 청소년 문제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더 심각한 비행이나 탈선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재미 한인 청소년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가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교포청소년 사회에도 갱이나 강도, 마약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중증의 문제는 그렇게 넓게 만연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그 대신 이중언어와 두개의 문화 가운데서 한국인인지 아니면 미국인인지를 스스로를 의심하는 정체성의 분열이 심하고, 보수적인 부모와의 사이에서 겪는 가치관의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이외에도 폭력이 난무하고 섹스와 마약의 문제가 심각한 폐락주의인 사회환경, 전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하여 필요한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의 부족, 적절한 또래집단 형성 부족과 또래문화의 미확립 등이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 대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만, 그 기본방향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함으로써 재미 한인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갖고 긍지를 느끼며, 언어와 생활습관이 다른 미국에서 적응하는 것을 도와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사회가 소수민족의 문화에 대하여 융광로정책을 탈피하여 이중언어교육과 문화적 다원주의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과도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또 현지의 교포청소년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학습하려고 하는 열기가 최근에 매우 높은데, 이러한 열기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확장하고,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교포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사회봉사활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이중언어와 다원적 문화에서 생겨나는 고민과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담활동을 강화하는 것 역시 시급한 일로 생각된다.

끝으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은 결코 청소년들의 미국화를 저해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이 미국의 주류문화를 학습하여 그 사회에서 적응하고 성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생활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정체성의 혼란과 분열, 가치관의 갈등을 겪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사회적 적응을 용이하게 하려는 뜻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학습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문화적 다원주의가 결코 소수민족을 고립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평등을 달성하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긍지를 살려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결국에는 미국전체의 발전에 공헌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참 고 문 헌

- Chae, K.M. (1990), Korean-American Juvenile Delinquency in Relation to Acculturation Difference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Ph. D. dissertation,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strada, L.J., Vasquez, M., "Schooling and Its Social and Psychological Effects on Minorities" in Sims, W.E., Base de Martinez, B.(eds). (1991), *Perspectiv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Wash. D.C.: University Press of America, Inc., pp. 53-74.
- Golden, J.G. (1987), Acculturation, Biculturalism and Marginality: A Study of Korean-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Ph. D. dissertation, U. of Colorado at Boulder.
- Han, L.S. (1990), Socioeconomic Status and Patterns of Recreational Participation of Korean Immigrant Preadolescent and Adolescent Youth in New York City, Ph. D. dissertation, NYU.
- Kallen, H.M. (1924), *Culture and Democracy in the United States*, New York: Boni and Liveright.
- Lee, S.B. (1989), Child-Rearing Practices of Korean Mothers in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Acculturation: A Study of Ethnic Persistence, Ph. D. dissertation, The State U. of New Jersey-New Brunswick.
- Levine, D., Havighurs, R.J. (1989), *Society and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Lickona, T. (1991), *Educating for Character*, N.Y.: Bantam Books.
- Pogrebin, M.R., Poole. E.D., "South Korean Immigrants and Crime: A Case Study", *The Journal of Ethnic Studies*, 17 : 3, 1989, pp. 47-80.
- Richardson, Jr., R.C., Skinner, E.F. (1991), *Achieving Reality and Diversity: Universities in a Multicultural Society*, N. Y.: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Macmillan.
- Sheu, C.J. (1986), *Delinquency and Identity: Juvenile Delinquency in an American Chinatown*. N.Y.: Harrow and Heston.
- Youth Affairs Administration, Management and Coordination Agency, Prime Minister's Office, Japan. (1987), *A Summary Report of the World Youth Survey*.